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법공양 페이지

# 자유권 있는데도 마음 자유롭게 못써

15면에서 계속

는 게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관하면 벌써,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기일이 왔는데 '지금 급합니다' 이라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친척이 만약에 미국에서 사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쪽의 마음도 이 쪽의 마음도 틀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는 길다 짧다, 악이다 선이다를 떠나서 무조건이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우리도 무조건입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네가 알리게 했으니까 난 그렇게 돼도 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처님의 그림자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지껏 수차례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실천을 하라고 그랬죠. 어떠한 것도 실천을 하라고 했죠. '오신통은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실천은 그릇대로 담는 걸 말해요'

그럴 때도 그렇고 국난에 처해 있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미리미리 이런 걸 알면 '회사가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게 될 수 있겠구나' 할 때 미리미리 대처를 할 수도 있죠. 다 꺾이고 무너진 다음에 일으켜 세우려니까 힘들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부부기간에 싸우고 헤어지는 것도 모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싸우는 것이거든요. 내가 없다면 뭐가 싸울 게 있습니까? 부부기간 만나는 것도 자식의 인연을 짓는 것도 다 까리까리 만나는 인연입니다. 금은 금대로 모아서 인연이 되고, 무쇠는 무쇠대로 인연이 되고, 배는 배대로 인연이 되고 이렇게 인연이 될 사람끼리 한 가정이 됐다면 그 가정에서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러니 모두 각자 내 탓으로 돌리고 돌 아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부드러운 할 해 줄 수 있고 부드러운 해 줄 수 있다면, 그 집은 아주 화합도 잘 되고 살림도 부유하게 돌아가고 인연이 일 없이 잘 걸어갈 수 있을텐데, 안되



그림 · 최추현

서 우리는 그 불성하고 내 불성이 통하고 있었니까 과거 즉 삼천년 전의 내가 현실의 나구나. 내가 삼천년 전의 그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자랑할 소릴 내가 잘하는데 자랑할 보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았다면 자랑할 얘기를 해도 다음에 먹고 싶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

냥고 개가 잉태를 하면 개를 낳죠? 그 식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게 돼 있으니까요.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딸이 소를 물고 나갔어요. 그런데 소를 물고 나간 딸이 안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오니까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냥 화가 나서 방방 뛰는데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나갔으니 소를 다 처리했지 뭐. 잘 처리했

우리는 과거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이고, 현실도 공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욕심이 움직거리니까 어떤 것 움직거렸을 때 내가 움직거렸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매사가 다 그렇죠. 반가와서 악수를 할 때 '어떤 게 먼저 가더냐' 하니까 '마음이 먼저 가더라. 그리고 손은 그냥 따라서 가더라' 이러죠. 그러니까 몸종이 하나 움직거리게 전체를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잘 다스려서 자기가 마음을 잘 내면 될 것을, 요만한 것도 잘 내내고 크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냥 자기가 상처가 나고 문제를 만들고 그러죠.

여러분도 살면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사세요. 한 철 캠프 나와서 사는 게 그렇죠. 캠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뱀비가 있으면 뱀비대로 숲이 있으면 숲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한 철 사는 데 욕심을 내고 울고 불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마음을 넓게 쓰면서 한 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화에서 탈린트들이 영화 막이 내리면 그 뿐인 것을, 거지 역할을 맡으면 어쩔고, 머슴 역할을 맡으면 어쩔고, 대왕 역할을 맡으면 어쩔습니까? 칼잡이 역할을 맡든 도둑 역할을 맡든 어떤 역할을 맡아도 그 막이 내리면 그 뿐인 줄 알고 있으니까 아무런 걸 말어나가도 편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천년 몇 만년 사는 줄 알고 이 모습을 가지고 뭐든지 쌓아 두려고 그러죠. 그러나 욕심 많게 쌓아 두려고 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지요. 모두가! 이 모두가 부질없는 일입니다. 쌓아둔 뭐가 있다면 빨리 내치워 마음이 시원하니까, 빨리빨리들 나누어 주는 것이 또 마음도 역시 그래야 우리가 회향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집을 지어서 끝을 마쳐도 회향하고 밥을 지어먹고 나서 설 거지를 해도 회향합니다.

만물만생이 다 여러분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스승이예요. 돌 하나라도 스승이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배울 수가 있었어요? 저렇게 나쁘게 해선 안되는데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중)세계의 진리이기에, 삼세를 돌아가는 수레와 같은 진리이니까 우리는 삼세를 뛰어넘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게 박아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실천을 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도.

부처님께서는 '발레 하나도 내 모습 아닌 게 없다. 풀 한 포기도 내 모습 아닌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가서 증생을 제도하는 거지, 증생을 저버리고 제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생의 모습이면 그 모습으로 화해서 나뉘어 주시니까 거기서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아주 잘 견뎌질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연을 다 맺으셨다 이겁니다. 뼈 한 무더기에 짚을 하시는 걸 보고 '사생자부이신 어버이신데 어찌 뼈 한 무더기에다가 짚을 하십니까?' 하니까, '내 할아버지할 수도 있고, 고조부일 수도 있고, 고조모일 수

마음으로 점프해서 계단을 한걸음에 오를 수 있다면 은산철벽 못 뚫겠나

도 있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일 수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을, 수없이 겪은 해아릴 수 없는 역경의 광년을, 책에는 '나유타' 라고 그랬습니다만 그 나유타를 거쳐서 오도록 그렇게 사연이 많았던 인연을 하나씩 묶으셨어요. 그러니까 행은 그 사람 차원에 따라서 따라 주시는 거죠. 개는 개대로 모습을 해서 따라주고, 사람은 사람대로 해주는 거죠. 사람 가까이 사는 게 더 고요한 것을 다 인간으로 화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돌은 돌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이요.

참이 없이 방편으로 말하지만 나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기 앉아선 부처님이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이 터져서' 이러한 건이 사방 가운데 전부 줄이 있듯이 이 지구에도 중심이 다 그런 법망이 있어요. 법망이 있기 때문에 굴러가고 또 법망이 가장자리로도 전부 있기 때문에 타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걸 오존층이라고 할까요. 대기권이라고 할까요.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게 돼 있어야요. 혈관이 다 이 몸을 싸고 있기 때문에 영계성이 유전성이 나 업보성이나 세균성 이런 것이 잘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갈 수도 없는 거죠. 나가면 죽으니까요.

이 말은 없는 일 아니라 지금 현실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서없이 여러분한테 이날까지 얘기를 했지만 두서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니까 두서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아는 만큼 나도 이만큼 알고 여러분이 바다와 같이 아신다면 나도 바다와 같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에 따라서 말합니다. 말 한 것을 아무렇게나 듣지 말고, 자기가 놓으면서 또 실천해 보세요. 육조스님도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여려한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있기 때문에 갖추어 가지고 있을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있기 때문에 만법을 들이고 내고 자유자재하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불성이 없어도 오직 살아나가는 일거수 일투족 모두를 다 거처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믿으세요. 그 구별 밖엔 없어요. 구별 없는 구별이 그 구별 밖엔 없어요.

일체제물이 통과하는 구별은 그 구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체 만물만생이 통과할 수 있는 구별도 그 구별 밖엔 없어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이 도리를 다 알고 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마음으로 조복돼야 보살역 할 수 있어 마음이 먼저 죽으니 몸속 생명 다 죽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귀신 방구씨가 뭐냐? 귀신 방구달이 뭐냐?' 이러죠. 체가 없으니 그것이 다 귀신 방구달이지 뭐냐? 체가 없는 것이 체가 없는 것을 먹어 키워야 정상적으로 크지, 체가 있는 것이 체가 없는 것을 키워주면 키워질까? 그게? 그러니까 마음, 이 마음이 그렇게 점프하듯 그냥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리가 터지고 불교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아는 사람이 된다면 힘이 없이 모든 일대사의 인연을 다 짓는 겁니다. 힘이 없이 하는 도리 말입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점프를 해서 뛰는 것이 허공을 걷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 계단을 밟지 않고 오는 것도 허공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걸 아님 길을 찾아요. 또 '물 앞에 자나무' 나라 한 것도 우리가 돌 아님 도리에서 어느 거든지 돌 아니까 공생이면서 공생이라는 뜻이 거기에 다 담겨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만 배우고 이론만 알았지 도무지 실천에 들어가지 않으니 무의미하게 그냥 떨어지는 거죠.

재차 말하지만 우린 여기에서만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은하계 모든 별성에도 우리의 마음 종자가 들어 있습니다. 불성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

기라도 들고 자주 실천을 해보아야 '스님이 이러한 말을 그 전에 하셨는데 나도 좀 해볼까' 하고 급하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알고 줄을 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딛다 보면 이 세상을 두루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곧 방편이자 실천입니다.

길 말이나 소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말이나 소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네 사람이 사형을 받고 끌려가는 거나 똑같아요. 혼이 다 빠져서 사형장 문턱에 들어서게 됐다는 거나 똑같죠. 소들도 눈물을 줄줄 흘리고 가요. 정말이예요. 이 다음에 도살장에 소 끌려가는 거 한 번 잘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안 들어가겠다고 막 발버둥 칩니다. 일체 만물만생의 특이한 이치죠. '나는 안 죽겠다' 하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나가다 볼 때에 돌 아니까 그 마음을 내가 갖든지 내 마음을 주든지 한다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없을 거고, 죽는다 해도 아프지 않고 아무 일 없이 그대로 환생이 되죠. 사람 속에 들어왔으니 사람이 되지, 사람 속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잉태를 하면 사람이

겠지' 하더라고요. 딸이 들어왔는데 그냥 맨손으로 터덜터덜 들어온단 말입니다. '왜 소는 안 가져 왔느냐?' 그러니까 딸이 하는 소리가 '네 기둥을 매고 네 발을 묶어 놓고 그 가운데다 불을 질러 구워서 동네방네 사람들하고 다 구워서 잘 먹었습니다' 이러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그 아버지 따라서 딸은 벌써 깨우침이 있었던 셈입니다. 어머니도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해도 어머니는 아둔해서 영-. 그러니까 그냥 필필 뛰고 그 소를 얼마를 주고 샀는데 소를 갖다가 구워서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먹었느냐고 야단을 하니깐, 딸이 있다 하는 소리가 '나도 없고 소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뭘 그렇게 야단을 하십니까. 어차피 소 한 마리 가지고 삼세가 다 먹어야 할 일인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과거·현재·미래가 바로 현재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과거가 따로 있고 미래가 따로 있고 현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 한 마리 가지고 다 먹었으니 그게 얼마나 거룩한 일인데 그러십니까? 삼세에 인연들을 다 먹었다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왜냐? 그걸 모르면 팔자운명으로 돌아가지만

금방 밥을 굶게 되면 뭐가 되면 자기는 심부름꾼이니까 주인에게 맡겨서 '네가 끌고 다니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너 맘대로 해라' 하고는 그냥 편안하게 놓으면 다 자기 형성이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 끌고 다니며 먹어요. 예전에도 내가 그렇던 걸요. 칫솔 하나 안 가지고 나갔지만 다 끌고 다니며 먹이더라고요. 하다못해 풀뿌리 하나를 먹고도 싹 하나를 뜯어서 먹어도 먹이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맛있게 먹으려고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 나무들을 보세요. 나무들이 말합니다. 다 자기 뿌리에 달려 있는데 싹이 무슨 걱정이니까. 바람이 부니 걱정이니까? 비가 오니 걱정이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뿌리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싹을 죽이게 되면 뿌리가 더 내려서 깊이 박혀요. 그것도 생각이 있고 말을 하고 그래요. 옥수수 같은 것도 비가 와서 흔들흔들 넘어질 것 같으면 뿌리를 사방에다 넓게 박아요. 그래서 저런 나무를 초식들도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드니까 내가 뿌리를 튼튼하

현 천 주인공